

텍스트 구조와 수사 표현으로 본 한-중-일 교과서의 발해사 서술

The comparative study on Descriptions about Palhae in East Asian Textbooks
focused on the Text Structure and the Rhetorical Expression

구난희(Nanhee Ku, 한국학중앙연구원)

목 차

I. 머리말

II. 분석을 위한 입론적 검토

III. 발해사 서술의 비중과 위계

IV. 발해사 서술의 응집성과 연계 유형

V. 발해사 서술의 내적 연계 유형과 수사 표현

IV. 맺음말

I. 머리말

발해사를 둘러싼 한국과 중국간의 인식 차는 종종 사회적 이슈를 형성한다. 교과서는 대중의 역사인식을 선도하는 주요 매체이므로 이러한 사회적 이슈는 자연스럽게 역사 교과서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다. 새 교과서가 출간될 때마다 각국의 교과서에서 발해가 어떻게 취급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주요 관심의 한 부분이 되어 왔다. 관련 서술이 소략하다 보니 대부분의 연구는 서술 내용을 문구 하나하나 세세히 분석하고 대안은 언제나 '정확한 사실과 풍부한 서술'로 마무리되어 왔다. 이러한 성과들은 중국과의 역사 문제에 대한 사회적 어젠다를 제기하고 중국학계에 일정한 비판적 견제를 가하는 귀중한 성과를 거두어 왔다. 특히 한중간의 교과서 문제가 대중적 감성으로만 치우치는 것을 지양하고 학문적 이성을 통해 시비를 가리고 대중의 역사적 교양을 선도한다는 점에서 많은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교과서라는 텍스트 성격을 고려한다면 다면적 검토가 필요하다. 교과서는 한정된 지면 속에 공교육이 지향하는 지식과 가치, 태도를 얻을 수 있는 내용을 담아야 하므로 일정한 선정 원리에 따라 서술 내용을 선별하고 그것이 학습자들에게 효과있게 습득될 수 있도록 배치한다. 따라서 교과서 지면에 드러난 개별 서술 지식을 단편적으로 분석하는 것만으로는 해당 교과서 서술의 의도나 영향력을 파악하기에 부족함이 있다.

따라서 교과서의 개별 서술의 분석만큼이나 그 교과서가 학습자들로 하여금 무엇을 얻도록 유도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교과서 서술로 구현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추적함으로써 교과서의 외적 환경과 내적 구조를 함께 분석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 인식으로부터 출발하였다. 한국과 중국, 일본

교과서 속의 발해사 서술을 둘러싼 내외적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접점으로 텍스트 구조와 수사 표현에 주목하고자 한다.

II. 분석을 위한 이론적 검토

교육과정은 교과서의 외적 구조를 형성하는 가장 영향력있는 문서이다. 일반인에게 노출되는 빈도나 접근성으로 보면 교과서가 비중있는 텍스트로 비춰지는데¹ 이러한 절대적(?) 지식의 교과서 서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교육과정이다. 특히 검정제도하에서 교육과정은 교과서 저자의 가장 강력한 자기검열 장치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교육과정에는 학생들에게 전달되어야 할 내용 요소뿐만 아니라 그를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포함된다. 일찍이 테일러는 교육과정에 부여되는 요구를 3가지로 분류한 바 있다. 학문적 요구, 학습자적 요구, 사회적 요구가 그것이다.² 여기서 학습자적 요구는 심리적 요구로 표현되기도 한다

학문적 요구는 해당 과목이 존치하는 기초가 된다. 과목의 내용 체계는 사실상 해당 모학문의 지식 구조에 의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이 요구는 오랫동안 높은 요구 수준의 지위를 누려왔다. 현재에도 그 영향력은 다른 어떤 요구보다 강력하다.

다음의 심리적 요구 즉 학습자 요구는 사회적 요구와 복합되어 교육 내용 재구조화로 집약되고 있다. 각 국가마다 교육개혁을 국가 어젠다로 내걸고 창의적이고 주체적인 인재 양성에 관심과 지원을 모으고 있다. 역사의 경우 비록 다른 과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체감도는 약하지만 이러한 시대 흐름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한중일 공히 과도한 사실 지식 위주의 역사교육이 미래사회를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능력을 계발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단순한 역사적 사실 보다는 역사적 현상을 판단할 수 있는 사고력 함양’에 노력을 기울이면서 ‘학습부담 완화’와 ‘학습내용 감축’으로 모아지고 있다.

마지막 국가사회적 요구는 언제부턴가 역사교육의 특정 부분의 서술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일국 내 이념 논쟁이 역사교과서로 옮겨오면서 정치적 논리가 학문적, 학습자적 요구를 무위화하기도 한다. 여기에다 중국 및 일본과의 역사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더해지면서 이 부분 요구는 점점 비중이 늘어가고 있다.

¹ 한중일 등 아시아 지역에서의 교과서의 권위는 지대하다. 대부분의 국가는 교과서로 사용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를 법률 등의 형식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활용 가능한 교과서는 별도의 심사 과정을 거쳐 그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공인된 교과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진행된 학습과정이 인정되지 않으며 때때로 해당 교사는 불법 교육활동을 한 것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² 이러한 분류는 테일러에 의해 시작되었는데(Ralph W. Tyler, *Basic Principles of Curriculum and Instruction*, Chicago: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49) 역자에 따라서는 학문적요구, 학습자적 요구, 사회적 요구로 명명하기도 한다.

발해 관련 서술의 대부분은 학문적 요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그것을 이탈하거나 상치되는 요구가 반영되기도 하는데 그 역학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론(교과별) 교육과정은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총론 교육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교과서 내적 구조는 교과서 집필자가 추구하는(또는 집필자가 요구받는) 생각이나 개념이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교과서에 구현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러한 내외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텍스트 구조론과 수사적 표현 기법에 착안하고자 한다. 학습 부담 완화의 요구 속에서 교과서 서술 분량이 축소됨에 따라 텍스트 구조와 표현 기법의 영향력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텍스트 구조와 관련해서는 일찍이 바터(Heinz Vater)는 구조를 심화시킬 수 있는 요소로 7가지 요소를 지적하였고³, 보드랑데와 드레슬러(Beaugrande & Dressler)는 이 가운데에서 결속성과 응집성이 중요하며, 그 중에서도 특히 응집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데 이견이 없다.⁴ 양자는 텍스트의 일정한 맥락을 형성하는 속성이라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전자는 주로 외형적 형식을 판단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내용적 연결성에 주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내용 구조가 전달하려는 의미를 연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면 응집성이 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케·누쓰바우머·포르트만(A. Linke·M. Nussbaumer·P.R. Portmann)의 논의도 유용하다. 그들의 연구는 텍스트 표층 구조와 심층구조로 나누고 표층 구조에서의 결속을 보여주는 것은 응결성이고 심층 구조의 결속을 나타내는 것은 응집성으로 구분하였다.⁵ 굳이 응결성과 응집성이라는 용어를 차용하지는 않겠지만 표층구조와 심층구조의 구분은 축약적인 교과서 서술 분석에 유용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텍스트 구조론과 관련된 선행 성과를 바탕으로 이 글에서는 발해를 다루는 단원 구성과 서술되고 있는 내용 요소를 분석함으로써 텍스트 응집성이 어떻게 결속(수렴)되고 있는지를 다루고자 한다.

여기에 더해 이해영이 주목한 텍스트 내 위계성도 포함하고자 한다. 그는 텍스트의 맥락적 일관성은 응집성 여부에 좌우되지만 그것이 구현되는 방식을 판단하는 것은 위계성이라고 보았다. 즉 위계성은 텍스트 내 내용 요소의 구성 및 배치를 파악하는 속성으로, 다양한 내용 요소를 중요도에 따라 배치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좋은 텍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낱말의 내용 요소가 병렬적으로 나열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³ 바터가 제시한 7가지 요소는 결속성, 응집성, 의도성, 용인성, 상황성, 상호텍스트성, 정보성이다.

⁴ “응집성은 분명 지배적인 텍스트성의 기준에 해당한다. 이것은 텍스트를 완성하는 데 핵심적인 것이다. 보그랑데·드레슬러(1981)가 정한 그 밖의 모든 기준들이 충족되어 있지 않더라도 응집성이 있는 한에는 텍스트일 수 있기 때문이다.”

(Vater, H.(1992), *Einführung in die Textlinguistik*. München: Wilhelm Fink.1992: 65; 이재원, 「응집성, 응집성들」, 『텍스트언어학』10, 2001, 156쪽 주)2에서 재인용).

⁵ Linke, A.·Nussbaumer, M.·Portmann, P. R.(1996), *Studienbuch Linguistik*. 3., unveränderte Auflage. Tübingen: Niemeyer. (1996: 224계속); 위의 글, 171-172쪽에서 재인용

전달하고자 하는 총체적인 의미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내용요소들의 가치를 판정하여 유사 정보는 묶고 통합하며 중요도가 낮은 정보는 더 중요한 정보에 귀속시켜야 하는 데 그 과정이 바로 위계화라고 보았다.⁶

하나의 텍스트를 위계성에 근거하여 구조화하기 위해서는 개념적 요소를 상위 요소로, 사실적 요소를 하위 요소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개념의 상위화는 교과서라는 텍스트를 구조화하기 위한 좋은 위계화의 방책이긴 하지만 역으로 이는 특정 역사적 사실을 당대의 역사상과 달리 현재의 역사인식에 의해 조작할 위험성도 있다. 서술 지면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교과서에서 다룰 때는 이러한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더욱 크다. 그러므로 국가간의 서로 다른 인식이 충돌하고 있는 발해사 서술의 경우 그것을 통해 형성되기를 기대하는 상위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은 중요하다.

텍스트 특성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또 다른 속성은 표현의 유형과⁷ 수사 기법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개별 성과를 일일이 열거하는 것은 어렵다. 다만 이러한 성과들을 한국의 교육 상황에 적용한 연구 성과로부터 도움을 구하고자 한다. 우선 서술 대상 텍스트간의 관계 특히 의미관계에 주목한 박진용의 연구이다. 그는 크게 수평적 의미관계와 수직적 의미관계로 나누었다. 다시 나열, 인과, 문제해결, 비교대조를 전자에 속하는 것으로 부가, 일반화를 후자로 분류하였다.

다음으로 주목할 분석 기준은 수사 표현 방식이다. 이해영은 메타담론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에 대한 선행 연구 성과를 분석한 바 있다. 저자는 일정한 표현 방식을 통해 자신의 입장이나 태도를 전달하고 있으며 독자는 이러한 저자 의도가 담긴 표현을 통해 저자의 의도를 파악한다는 문제인식하에 표현 기법에 관한 다양한 선행연구를 소개하였다.⁸

그가 소개한 선행 연구의 다양한 표현 기법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기법을 선정하였다. 텍스트와 텍스트를 연결하며 글을 전개하는 방법으로서는 맥락 연결, 증거 제시, 반증 제시 및 비교, 부가 설명이 있다. 표현 기법에 따라서는 강조, 확신, 추측, 평가 등을 다루고자 한다⁹.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 글에서는 텍스트 구조 분석을 위해 단원 구성과 위계성, 텍스트 구조의 유형과 응집성, 수사 표현 기법을 검토하기로 한다. 대상 교과서는,

⁶ 이해영, 『역사교과서 서술의 원리』, 책과함께, 2014, 32-33

⁷ 이는 내용 구조의 유형의 문제와도 연결된다. 구조 유형으로 볼 지 서사 표현 유형으로 볼 지는 좀 더 속 고가 필요하다.

⁸ 이해영, 위의 책, 53-55쪽.

⁹ 이해영은 하이랜드의 견해를 참고로 논리적 연결, 내조응 표지, 증거 표지, 코드 주해 표지를 텍스트적 메타담론으로, 추측적 표현, 확신적 표현, 태도 표지, 관계 표지, 인칭 표지를 대인관계적 메타담론으로 소개하였다. 여기에 더해 크리스모어가 제시한 정보적 메타담론과 강조, 확신, 추측 등의 태도적 메타담론을 소개하였다.(이해영, 위의 책, 55-57쪽)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중 발해사가 수록된 과목으로 하였다. 다만 한국과 일본의 경우 고등학교 교과서를 대상으로 하였지만 중국은 중학교(초급중학교)와 고등학교(고급중학교)가 하나의 체제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부득이 발해사가 포함된 7학년(중학교에 해당) 교과서를 대상으로 하였다. 3국 모두 교과서가 검정 발행 체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당 과목의 교과서는 다양하지만 모든 교과서를 검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실질적으로도 그다지 실익이 없다고 여겨지므로 여기서는 다음과 같이 각국의 대표 출판사 교과서를 분석 대상으로 삼고 필요한 경우 타사의 동종 교과서 내지는 타교과 교과서도 참고하겠다.

	교과서명	저자	출판사	발행년도
한국	고등학교 한국사	주진오 외	천재교육	2009
중국	中國歷史 7年級 下冊	課程教材研究所 歷史課程教材研究開發中心 編著	人民教育出版社	2012 (2001初版)
	中國歷史 初中1年(7年)級 上	主編 王斯德	華東師範大學出版社	2005 (2001初版)
일본	詳細 日本史B 日本史B	老川慶喜 外 山本博文 外	山川出版社 東京書籍	2013 2004
	世界史B	尾形勇	東京書籍	2013

Ⅲ. 발해사 서술의 비중과 위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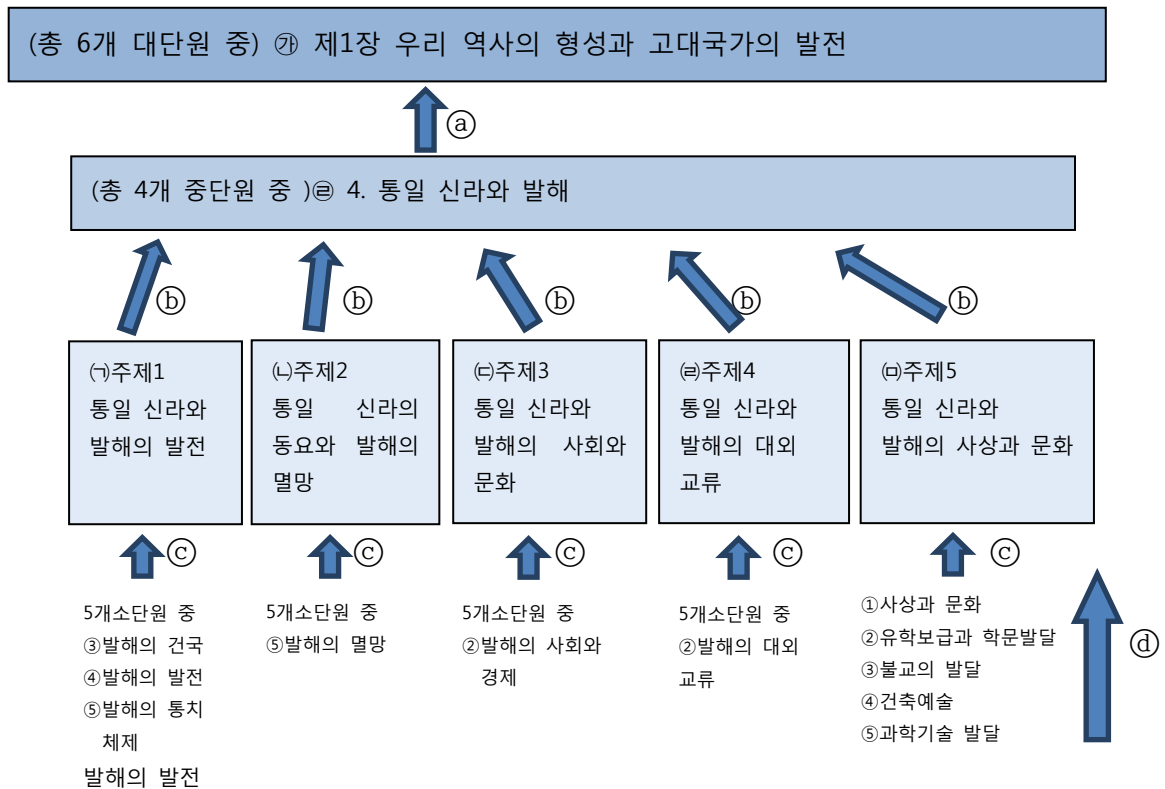
먼저 발해사의 개략적 현황을 비중과 단원 구조로 살펴보기로 한다. 3국의 서술 현황을 병렬적으로 놓고 산술적으로 파악해서는 곤란하다. 각국의 역사교육 현황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좀 더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역사교육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전근대와 근현대가 어느 비중에서 배치되고 있는지, 세계사에서 동아시아사가 어느 정도 할애되고 있는지 등의 전체 구도 위에서 따져보지 않으면 안된다¹⁰. 뿐만 아니라 발해사가 자국사와 세계사의 어느 부분에서 다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도 서술에 미치는 큰 변수가 된다. 하지만 이 글에서 모든 조건을 고려할 수 없으므로 발해사가 속한 당대 역사 속의 비중만 살피기로 한다. 아울러 이러한 비중이 실제 발해의 위상을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발해 서술이 속한 단원 구조를 통해 발해 서술의 위계를 검토하기로 한다. 도식 1~4는 발해가 다루어지고 있는 대단원을 단위로 하위 단원과 서술된 내용 요소를 도식으로 간략화한 것이다. (화살표 옆의 원문자 ㉠~㉣는 다음 장 서술을 위해 부가한 것이다)

한국에서 발해사는 자국사인 한국사 과목 속에서 통일신라와 나란히 다루어지는데

¹⁰ 이에 대해서는 줄고가 참고된다.(구난희, 「세계사 교육과정의 현황과 개선 방안」, 『역사교육』93, 2005, 122-130쪽.)

세부 구성에서는 교과서마다 차이를 보인다. 통일신라와 발해를 각각 나누어 정치 발전 과정을 다루고 경제, 사회, 문화 단원에서 함께 다루기도 하고¹¹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단원으로 구분하여 통일신라와 발해를 대등하게 병치한 경우도 있다.¹² 즉 통일신라와 발해가 수평적 의미 관계로 구조화되면서 나열과 비교 대조 유형이 동시에 구현되고 있다.

(도식 1) 한국의 한국사



이전 교과서의 경우 통일신라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를 각각 중단원 규모로 나누어 서술한 뒤 발해는 하나의 중단원에 부록 수준으로 서술되었다. 이는 마치 조선후기 사서에서 발해를 세가로 다루었던 형세와 유사하여 수직적 의미관계인 부가적 유형으로 처리되고 있다. 이에 비해 보면 현재의 단원 구성과 내용 배치는 진일보한 셈이다. 특히 후자가 전자보다는 수평적 의미 관계를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하면서 궁극적으로 발해가 통일신라와 동 시기에 한국사 무대에 존재하였다는 점을 단원구성과 내용배치를 통해 구현하고 있다. 도식 1로 제시한 천재교육 교과서의 경우 여기에 더해 문화 단원에서는 소단원 수준의 소주제 안에 다시 통일 신라와 발해를 함께 제시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 밖에도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고구려의 대수, 대당 항전으로부터 신라의 불안정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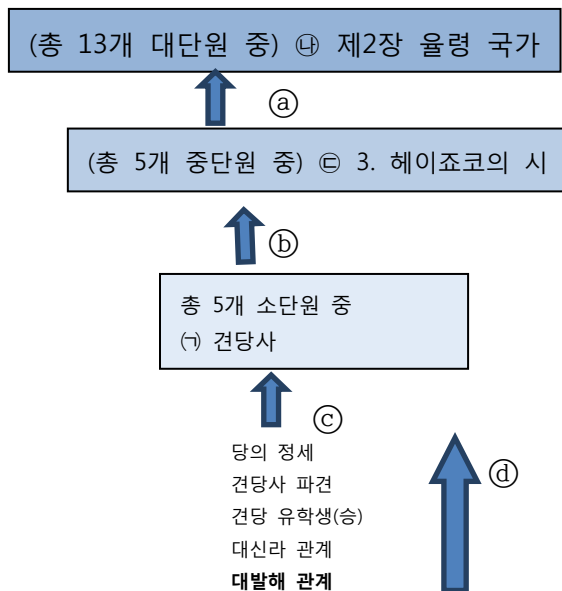
¹¹ 최준채 외, 『한국사』 리베르, 2014; 권희영 외, 『한국사』, 교학사, 2014.

¹² 김종수 외, 『한국사』, 금성출판사, 2014; 한철호 외, 『한국사』, ㈜미래엔, 2014; 도면희 외, 『한국사』, 비상교육, 2014; 정재정 외, 『한국사』, 지학사, 2014;

통일에 이르는 과정을 도입으로 배치하여 발해 건국을 고구려 유민의 행보와 연계하는 인과적 유형도 있다.¹³ 발해의 한국사적 맥락을 더욱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구성이라 하겠다.

일본에서의 발해사는 『일본사』와 『세계사』에서 각각 다루어진다. 『일본사』에서는 나라와 헤이안 시대의 역사상을 이해하는 한 내용 요소로 발해를 다루고 있다. 발해 서술이 속한 견당사라는 소단원은 동일 위계의 타단원과 수평적 나열 구조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소단원 내에서 발해 서술은 일본의 견당사 서술에 부가되는 구조로 취급되어 같은 단원 내에서도 차등적 위계를 부여받고 있다. 이런 탓에 발해사 자체의 맥락은 무시되고 일본과의 관계만이 한 단락 정도 언급되고 있다. 과목 특성으로 보면 당연한 것이지만 발해 왕조의 특징이나 의의를 전혀 알 수 없다는 점은 유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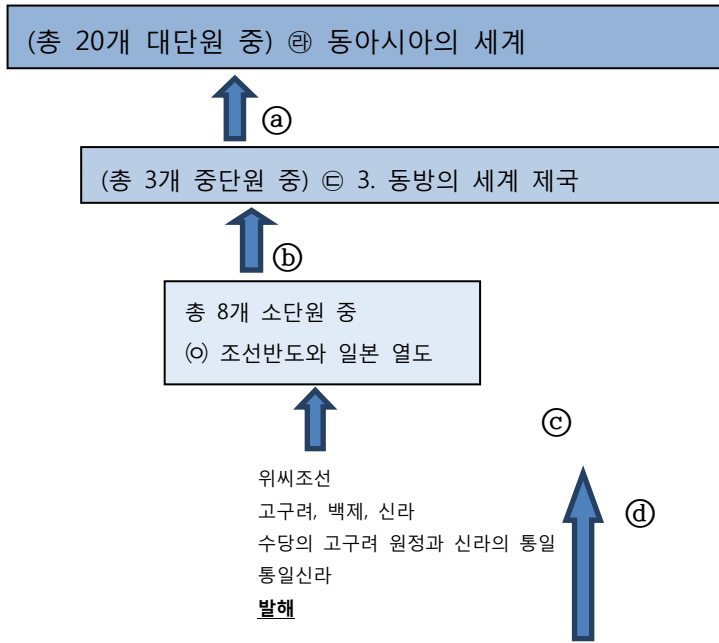
(도식 2) 일본의 『일본사』



한편 일본의 『세계사』에서 발해는 동아시아 고대 속에서 ‘조선반도와 일본열도’라는 소단원 하에 한 내용 요소로 다루어지고 있다. 비록 비중면에서는 이 단원 전체지면 20쪽 중 16쪽에 달하는 다량의 지면이 중국사로 할애되는 가운데 발해는 1 문장으로 할애될 만큼 소략하지만 발해를 조선반도에 성립한 왕조의 하나로 다룸으로써 다른 요소와 수평적 나열 관계를 이루면서 발해의 개략적 흐름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본사』의 내용 구성이 갖는 문제를 반복하지는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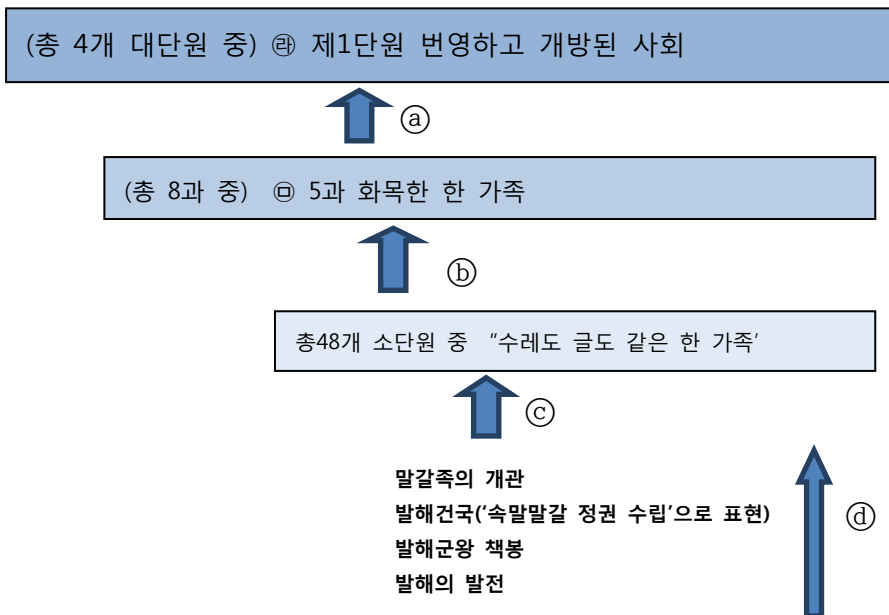
(도식 3) 일본의 『세계사』

¹³ 김종수 외, 『한국사』, 금성출판사, 55-57쪽.



중국의 경우 이미 잘 알려진 바대로 발해는 『세계역사』가 아닌 『중국역사』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중국역사』는 7학년과 8학년 모두 2년간에 걸쳐 학습된다. 교과서는 4권으로 발행되는데 발해사는 7학년 하책에 수록되어 있다. 발해사를 다루는 대단원은 수당 시대로 발해는 수당의 역사를 다룬 뒤 주변 제민족의 역사의 일부로 소개된다. 전체 단원 중에 단 1.5% 내외만이 할애되고 있다.

(도식 4) 중국의 『중국역사』



비중에 걸맞게(?) 발해의 위계는 매우 낮다. 우선 위형적 위계면에서 보면 소단원의 위계를 부여받고 있지만 『중국역사』가 2년에 걸쳐 학습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내용요소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해당 단원 내의 내용적 위계이다. 당의 역사가 본류로 대단원에 편성되고 그것에 부속된 주변제족의 역사가

중단원의 지위로 할애되고 발해는 그 소단원의 한 내용요소로 다루어지고 있다. 궁극적으로 당의 역사를 설명하는 보조 재제로 추가되면서도 수직적 의미구조 내 최하위의 위계에 머물고 있다¹⁴.

이상 각국의 교과서 속에서 발해가 차지하는 비중이나 위계를 검토해 보았다. 『한국사』에서 발해는 중단원의 위상을 차지하면서 통일신라와 함께 수평적 의미 구조로 배치되고 있지만 『중국역사』와 『일본사』에서 발해는 소단원 하의 내용 요소로 다루어지면서 수직적 의미 구조 내 하위 위계를 부여받고 있다.

이러한 비중과 위계는 곧 발해사 학습의 목표가 무엇인가와 직결되어 있다. 『한국사』의 경우 발해사 이해 자체가 학습목표이자 단원 설정의 취지이지만 『중국역사』와 『일본사』는 각각 ‘대당성세(大唐盛世)’와 ‘일본 율령국가’를 이해하기 위한 여러 학습 요소의 하나로 발해가 다루어지고 있다. 다만 『일본사』는 발해를 대외 관계에서 다루면서 그나마 한국사 내에 형성된 독립왕조로서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당과 화목하게 지낸 ‘한 가족’이라는 학습 목표를 통해 일개 지방정권으로서 당의 번영에 편승한 단편적 역사상으로서만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이상과 같은 양적 차이나 외형적 위상만으로 특성을 단언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 각 과목은 제각각 나름의 특성과 교육목표를 추구하고 있으며 그것은 다시 해당 국가(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이다. 단순한 외형적 차이가 아니라 어떠한 역사이해의 맥락 속에서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세심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IV. 발해사 서술의 응집성과 연계 유형

텍스트 서술에서 응집성이란 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개념이나 메시지를 중심으로 서술 내용을 맥락화하고 수렴해 나가는 정도나 경향성이라 하겠다. 교과서의 응집성은 학습 목표를 중심으로 집약되며 단원별로 위계가 뚜렷하므로, 상위 단원이 추구하는 학습 목표나 방향성이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역사과목의 특성상 개념 용어가 상대적으로 적은 데다 발해사를 다루는 역사교과서는 한결같이 통사적 구성을 취하고 있어 교과서 서술이 저자의(또는 저자에 강요되는) 의도나 가치를 표면적으로 드러내지는 않는다. 오히려 발해 관련 서술이 등장하는 지점과 그 위계적 맥락을 파악하는 작업으로부터 단서를 제공해 받을 수 있다. 발해 서술이 어떠한 연계 유형으로 구조화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¹⁴ 세계사에서 한국사는 일본의 야마토 조정의 서술 말미에 덧붙여진 참고자료에서 신라에 관한 간략한 언급만이 있었다가 한국측의 한국 고대사 실종이라는 비판이 들끓자 2008년판부터 기존의 읽기자료(自由閱讀卡)였던 ‘일본의 무사와 무사도 정신’을 ‘고대조선’으로 바꾸고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역사를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발해사는 전혀 다루지 않는다. 앞서 중국역사의 취급 맥락에서 보면 세계사에서 언급할 이유도 없으며 언급하는 것이 자기 모순이 될 수밖에 없다.

것이다.

아래 표는 교과서별로 단원 및 내용요소간 연계 유형을 정리한 것이다. (표 내의 ㉠, ㉡, ㉢, ㉣는 도식 1~4에 표시된 것이다.) 우선 한중일 교과서 전반에 걸쳐 수집과 열거 유형이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상하단원간의 관계가 수집 유형이 많다는 점은 상위 목표 수준에 하위 목표나 내용 요소가 일정한 응집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발해를 다루는 대단원의 성취 수준이 무엇인가를 통해 수집 유형이 어떤 학습 목표에 응집하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를 파악하면 자연스레 발해가 열거 유형으로 취급되는 학습 요소들의 의미와 효능도 확인될 수 있다.

	㉠	㉡	㉢	㉣	
한국사	수집, 열거	수집, 열거	열거, 비교대조	열거, 비교대조	인과(발해건국)
					열거(발해발전)
					열거(발해통치)
					열거, 비교(발해경제)
					열거, 비교(발해문화)
일본사	수집, 열거	수집, 열거	수집, 열거	부가, 인과	
세계사 (일본)	수집, 열거	수집, 열거	수집, 열거	열거, 대조	
중국역사	수집	부가	부가	수집	부가(말갈역사)
					부가, (발해건국)
					인과(발해책봉)
					인과(발해발전)

『한국사』 교육과정에서 명시한 이 단원의 성취수준은 ‘통일 신라와 발해의 발전과 사회경제적 모습을 파악한다’로 진술되어 있다¹⁵. 통일 신라와 발해를 동시대에 공존한 왕조로 묶음으로써 발해의 한국사적 맥락을 분명하게 인식하도록 명시하였다. 예시로 제시한 교과서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교과서 저자들은 이러한 교육과정의 취지를 살려 발해의 건국에서부터 발전, 멸망 과정을 통일신라와 동일한 단원에 배치하고 있다. 수집과 열거가 각 왕조별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동 시대의 병존 구조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나열적 구조라 하더라도 비교 대조 유형으로 연계함으로써 발해의 한국사적 맥락을 파악하려는 응집적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사』 학습지도요령에서는 “우리 나라에서의 국가 형성과 율령체제의 확립 과정, 수.당 등과 동아시아 세계와의 교류에 착안하여 고대국가의 전개와 고분문화, 天倂문화 등의 특색에 관해서 이해시킨다.”고 명시하고 있다¹⁶. 발해가 이 단원에 편성된 것은 ‘당 등과 동아시아 세계와의 교류에 착안하여’라는 조항에 따른 것이며 궁극적으로 발해사의

¹⁵ 교육부, 『사회과(한국사) 교육과정』, 2009.

¹⁶ 文部科學省, 『地理歴史(日本史B)學習指導要領』, 2003.

취급은 일본 고대 국가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부가적 서술 유형으로 등장하고 있다.

일본의 『세계사』 학습지도요령에서는 “동아시아·내륙 아시아의 풍토, 중화문명의 기원과 진, 한나라, 유목국가의 동향, 당 나라와 동아시아 여러 민족의 활동을 언급하고,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세계와 내륙 아시아 세계의 형성과정을 파악시킨다.”고 명시하였다. 각국 내지는 지역사의 망라적 이해를 명시한 만큼 발해는 이를 위한 수집 유형으로서 다른 지역사와 나열적 관계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발해사에 대한 평가없이 간략 사실을 제시하고 있는 점은 바로 이런 연유이다. 다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발해의 비교적 특성은 중화문명을 적극 섭취한 것으로 서술하면서 당 중심의 동아시아 이해라는 응집성을 유지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발해는 당 중심의 국제사회를 이해하는 객체적 부가 요소에 한정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중국역사』 과정표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발해 관련 단원의 내용 기준은 “武則天과 開元盛世的 기본적 역사적 사실을 안다”이다. 즉 상위 수준의 학습 목표 “開元盛世를 이해하는 것”에 발해 역사가 응집되는 구조이다. 한국사적 맥락에서 보면 이러한 구조가 텍스트 응집성의 부정합이라는 것은 재론의 필요조차 없는 것이므로 여기서는 이러한 응집성의 자의성과 그 구조에 주목하고자 한다. 교과서에서는 응집성의 논리 구조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역사 과정표준에 명시된 기본방향으로부터 응집 논리를 찾을 수 있다.

과정표준은 중국 역사를 일련의 통일적 다민족국가 형성과정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른바 ‘민족융합’의 단계에서 ‘민족관계의 발전’을 거쳐 ‘통일적다민족국가’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남북조 시기를 민족융합으로 정의하여 漢과 胡간의 교류를 강조한 연후 수당 시기는 직접 통치구역 내 漢, 蒙, 回, 藏 등 다수 민족이 출현하는데 이것이 전대의 민족융합으로 바탕으로 하나의 민족으로 통합되었다고 설명한다. 이에 이어 이를 수행한 것이 한족임을 강조하고 이러한 현상을 곧 ‘민족 관계의 발전’이라고 명명하고 있다¹⁷. 즉 민족통합의 현재적 과제를 역사 시대로 소급하여 민족통합의 역사로 구조화하여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¹⁸ 이러한 논리에 따라 발해는 직접 통치 구역 내에서 발전한 민족 관계를 설명하는 부가적 요소로 취급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는 교과 목표에서 명시한 과목의 성격과도 호응을 이룬다. 과정표준에서는 “역사학습을 통하여 중국 國情을 이해하고 중화민족의 우수한 문화전통을 열애하고 계승하며 민족정신을 확산하고 배양한다. (중략) 애국주의 감정을 배양한다”고 과목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¹⁷ 教育部基礎教育司, 『全日制義務教育歷史課程標準(實驗)閱讀』,北京師範大學出版社, 2003, 55-57쪽.

¹⁸ 이러한 의도는 간략화된 ‘역사와사회’, ‘역사’ 과정표준에서 더욱 극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전자에서는 “중화민족의 융합과 발전의 실마리를 이해하고 각 민족 인민이 공동으로 통일적 다민족국가를 만들어내고 공동으로 조국의 문화를 창조해내었음을 인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후자에서는 “중국은 자고이래 다민족국가를 이루어 왔으며 중화민족의 역사는 민족이 교류하고 공동으로 창조한 역사라 말할 수 있다. (중략) 통혼 (중략) 투쟁 (중략) 을 통해 민족간 차이를 줄이고 (중략) 공동문화의 안정된 공동체를 형성했다. 역사상 각 민족은 모두 통일적 다민족국가의 형성을 위해 중화민족의 발전을 위해 공헌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발해가 속한 중단원인 ‘화목한 한 가족’은 수집적 유형이기보다는 당의 성세를 강조하는 부가적 유형으로 취급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응집성을 추구한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제민족의 역사를 부가적 유형으로 포함한 것은 자국사에 대한 상대화라기보다는 자국의 문화적 자긍심을 강화하는 기제로 활용되고 있다.¹⁹

한중일 역사교과서는 교육과정에 명시한 교육 목표(성취 수준)를 중심으로 교과서 내용 요소를 통사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런 연유로 공히 수집과 열거 유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발해는 부가적 유형으로 다루어지는데 정작 저자의 의도가 드러나는 대목은 다량의 수집, 열거 유형이 아니라 바로 이 부분이다. 전자는 일본사에서의 발해-일본간 교류 배경에 대한 부부, 그리고 중국역사에서는 발해의 발전의 동인을 당과의 관계로 해석하는 부분에서 나타난다. 후자는 발해사의 전사로서 말갈사를 포함한다거나 더 근본적으로 당의 지방정권 역사에 발해를 포함하는 것 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대목들은 말할 것도 없이 자국사 중심의 역사 해석을 부각하고 있다.

V. 발해사 서술의 내적 연계 유형과 수사 표현

이 장에서는 발해 서술의 내적 연계 유형과 수사 표현의 특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일본사』 “견당사” 중

①한편 북방의 중국 동북부 등에 사는 말갈족과 구고구려인을 중심으로 건국된 발해와 일본과의 사이에서는 친밀한 사절의 왕래가 이루어졌다. ②발해는 당, 신라와의 대항관계 때문에 727 년 일본에 사절을 파견하여 국교를 구하고 일본도 신라와 대항관계 때문에 발해와 우호적으로 통교했다 ③또한 7 세기말에 중국동북부에 건국한 발해는 당과 신라와 대립했기 때문에 일본과의 국교를 중시하고 727 년 이래 점차 사자를 파견했다. ④발해와의 관계는 8 세기 후반 이후는 교역주체가 되었지만 발해로부터 사자와 일본 문인간에는 한시문을 통한 교류가 있었다는 것도 주목된다. (45 쪽)

『일본사』의 발해 서술의 맥락은 ①발해왕조에 대한 정의-②③일본과의 교류-④교류양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은 확신적 서술로 표현되고 있지만 정작 건국 주체는 애매하게 처리하고 있다. ②와 ③에서 발해의 대일본 교류의 동인을 ‘발해의 대외적 고립’으로 연결짓는 인과적 유형으로 서술하고 이를 해석적 관점이 아닌 확신적 표현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는 텍스트 표층구조가 아닌 텍스트 심층구조로서의 응집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견당사를 통해 일본이 대륙과 교류하였음을 설명하되, 발해와의 관계는 이와 달리 발해의 필요라는 해석을 더함으로써 고대 일본의 교류는 중국을 주축으로 삼았다는 텍스트 응집성을 구현하고 있다.²⁰ 더욱이 “친밀한/ 구하고/ 때문에/ 우호적으로/ 중시하고”와 같은 수사 표현으로 이를 더욱 가세하고 있다.

¹⁹ 오병수, 중국의 중등학교 교육과정 개혁과 자국사 교육의 편제, 권소연 외, 중국의 역사교육과 교과서, 2006, 205쪽.

²⁰ 더 나아가 다른 교과서에서는 발해와의 교류 사실을 율령국 일본의 소중화 체제로 연결짓는 경우도 있다.

④는 ③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③이 교류의 원인을 정치적 대립과 연용으로 해석한 것과 달리 교역과 한시 교류를 특징으로 서술하고 있어 발해 필요에 의한 교류라는 역사상과 다소 거리가 있는 텍스트를 제공하여 응집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앞에서 해석적 관점을 확신적 유형으로 처리함에 따라 학문적 성과를 연계하는 이 지점에서 모순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일본 『세계사』 “조선반도와 일본열도” 중

①유라시아 대륙의 동단, 중국 대륙의 동북부에는 7 세기말에 대조영이 말갈의 민과 고구려의 유민을 이끌고 발해를 건국하고 ②당의 책봉을 받아 중화문명을 적극적으로 섭취했다. (91 쪽)

『세계사』는 발해 관련 서술이 극히 소략하여 특별한 구조를 지적하는 것은 무의미할 지도 모른다. ②의 문장을 인과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발해의 발전이 중화문명 섭취이고 그것을 가져 온 동인을 책봉이라고 이해하게 만든다. 이는 발해가 당 중심의 동아시아 이해를 위한 부가적 텍스트라는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게다가 일본사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는 책봉을 부각함으로써 당시 동아시아 세계에 대한 일본의 차별적 위치를 부각할 수 있는 부수적 효과도 갖는다.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심층구조를 통해 일본의 동아시아담론으로 응집시키는 구조라 하겠다. ‘적극적으로’라는 표현은 이러한 취지를 드러낸 수사라 하겠다.

중국 『중국역사』

“수레도 글도 원래 한가족”

①수당시기 우리나라 동북의 송화강, 흑룡강 유역에 말갈족이 생활하고 있었다. ②그들은 용맹하고 사나웠고 노래와 춤에 능했다. ③7 세기말 말갈족의 한 갈래인 속말갈이 각 부를 통일하고 정권을 건립하였다. ④후에 당현종이 그 곳에 주를 세우고 수령을 도독으로 삼고 발해군왕으로 봉하였다. ⑤이로부터 속말갈 정권은 발해를 국호로 했다. ⑥발해는 책봉을 받은 후 면적이 끊임없이 확대되고 인구가 증가하고 내지와 무역 왕래도 빈번했다. ⑦경제문화 수준이 비교적 높아 해동성국이라 불리웠다. (25-26 쪽)

『중국역사』의 발해사 서술 맥락은 ①말갈의 역사-②말갈의 특성-③발해 건국-④당의 책봉-⑤국호 확정-⑥발해의 발전-⑦발해에 대한 평가로 이어지고 있다. ①②에서 말갈을 서술하여 ③으로 연계시킴으로써 ‘말갈발해’의 응집성을 조작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도입에서 부가적 텍스트를 더함으로써 텍스트 응집성을 강화하고 있다. 이어 ④로부터 ⑦에 이르는 발해의 당 종속적 해석을 확신적 표현을 처리하고 있다. 즉 당조와의 관계를 통해 발전하였다는 응집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단원 내의 응집성을 넘어서 과정표준에서 제시한 학습목표로부터 교과서 단원 구조, 내용 서술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과 조응하고 있다.

말갈의 특성을 강조하기 위해 ‘용맹하고 사나웠고’라는 수사적 표현을 더하는 한편, 발해가 당조의 한 지방정권이며 당조에 의해 발전되었음을 전달하려는 취지는 ‘정권을 건립/주를 세우고’ 등, 당 성세의 부가적 요소로 포함하기 위해 ‘끊임없이/비교적/불리웠다’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한국사』에서의 발해 서술은 서술 분량에서부터 큰 차이를 보인다. 여기서는 앞에서 지적한 일본과 중국의 서술 구조 및 수사 표현과 대비할 수 있는 건국, 발전, 사회와 경제, 대외 교류에 한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발해의 건국”

①고구려가 멸망한 뒤 당은 고구려의 옛 땅에 안동도호부를 두고 직접 지배하고자 하였으며 많은 고구려 유민을 당으로 이주시켰다. ②그러나 고구려 유민들은 곳곳에서 당에 저항하였고 7세기 말 당의 통제력이 약해지자 저항은 더욱 강해졌다.

③이 시기 영주 지역에 있던 고구려 출신 대조영이 고구려 유민과 말갈 집단을 이끌고 옛 고구려 땅으로 이동하였다. 대조영은 지린 성 둔화 지역에 있는 동모산에 발해를 세웠다(698). ④발해는 건국 이후 고구려 계승 의식을 분명히 내세웠다. ⑤이로써 남쪽의 신라와 북쪽의 발해가 공존하는 남북국 시대를 이루게 되었다.

①과 ②를 통해 발해 건국의 배경을 고구려 멸망과 대당 항전의 맥락 속에서 다루고 ③과 ④의 서술로 연결하고 있다. 전자와 후자는 서술에서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인과적 구조를 이루면서 발해의 고구려 계승이라는 심층구조의 응집성을 이룬다. ‘많은/곳곳에서/더욱/이끌고/분명히’라는 수사 표현은 이러한 발해 건국의 배경과 건국 주도 집단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아울러 ④는 평가적 서술을 확신적 표현으로 전달하면서 발해 건국의 한국사적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²¹.

“발해의 발전”

①대조영(고왕)의 뒤를 이은 무왕은 동북방의 여러 세력을 복속하였다. ②이에 신라는 북방에 성을 쌓았고, 당 또한 흑수 말갈을 이용해 발해를 견제하였다. ③발해는 당의 등주를 선제 공격하고 요서 지역에서도 당과 격돌하는 한편, 일본과 교류하였다.

④문왕 때에는 당과 우호 관계를 맺고 문물을 받아들여 체제를 정비하였다. ⑤문왕은 황상이라는 칭호를 사용하였고 일본에 보낸 외교 문서에서 ‘천손(하늘의 자손)’이라고 표현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발해의 위상을 자신감있게 표방하였다.

⑥발해는 9세기 전반 선왕 대에 최대의 전성기를 맞이하여 그 영역이 북으로는 헤이룽 강, 동으로는 연해주, 서로는 요동에 이르렀다. ⑦당은 이러한 발해를 가리켜 ‘해동성국’이라 불렀다. ⑧이 뿐만 아니라 발해는 거의 전 시기에 걸쳐 독자적으로 연호를 사용하면서 중국과 대등한 지위를 가진 독립 왕조임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하였다.

발해 발전의 서술은 자주적 행보에 응집되고 있다. ①과 ②를 인과적 서술로 다시 ②와 ③을 인과적 서술로 연계함으로써 동북방의 정세 변화를 발해를 중심축으로 이해하도록 구성하였다. ④로부터 ⑧에 이르는 서술 또한 발해의 자주적인 발전 과정으로 응집하는 나열적 구조를 이룬다. 전반적으로 해석적 관점을 확신적 표현으로 서술하고 있다. ‘격돌/ 자신감있게/ 대등한/ 대내외적으로/ 천명’ 등의 수사 표현은 이러한 텍스트 응집성을 더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문왕 사후의 정치 변동에 대한 서술이 생략되고 있다. 텍스트 응집성면에서 본다면 적절한 내용을 선정한 것이지만 발해가 전 시기 동안 강력한

²¹ 2010년에 개정된 교육과정에서는 ‘삼국간의 항쟁 과정을 이해하고 남북국 시대에 나타난 신라의 발전 모습과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의 역사적 의의를 파악한다’로 명시하고 있다.(교육부, 『사회과(한국사) 교육과정』, 2010) 이에 따라 발해의 고구려 계승성에 대한 서술은 좀 더 강화될 전망이다.

왕권하에 발전하였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우려도 있다.

발해 주민에 관한 서술에서는 고구려 계승성을 강조한 것과는 달리 말갈에 대한 언급이 적극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만하다.

“발해의 사회와 경제” 중

① 발해의 주민은 고구려 유민과 말갈인으로 구성되었다 ② 말갈인은 고구려 때부터 고구려에 편입되었으며 발해의 건국 때도 고구려 유민과 운명을 같이 했다. ③ 발해의 지배층은 왕족인 대씨와 고구려계 귀족과 말갈계 귀족으로 이루어졌다. ④ 이들은 중앙과 지방의 주요 관직을 차지하고 사회경제적 특권을 누렸다. ⑤ 말갈계 귀족 중에는 혼락의 우두머리인 수령도 있었다 (51쪽)

①의 서술을 중심으로 ②로부터 ④에 이르는 서술이 수집적 관계를 이루면서 두괄적 일반화를 이루고 있다. 특히 ②는 부가적 서술로서 말갈의 관계를 고구려 계승성과도 연계하고 있다. ‘운명을 같이’라는 수사 표현은 이러한 의도를 적절하게 드러내고 있다. 말갈과 고구려의 문제를 이분법적 구도가 아닌 다민족 다문화의 관점에서 접근하면서 궁극적으로 고구려 계승성에 응집하고 있다.

3국의 교과서는 전반적으로 수집 나열 구조 위에 간결하고 정제된 표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일반성은 통사적 구성을 취하는 역사 과목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라 하겠다. 하지만 때때로 부가적 정보를 덧붙이기도 하고 해석적 논의를 확산적 유형으로 서술하기도 한다. 여기에 수사적 표현으로 저자의 관점을 드러내기도 한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예외적 특성은 한결같이 자국사적 맥락을 강조하는 응집성의 기제로 사용되고 있다.

VI. 맺는 말

지금까지 한중일 역사 교과서상의 발해사 서술을 비교 검토하였다. 문두에서 밝혔듯이 기존의 서술 내용 중심의 분석과 달리 교과서를 둘러싼 내외적 구조를 통해 텍스트 특성을 살피고자 하였다. 이하 이 연구에서 확인된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교과서 문제에 대한 제언을 첨언하는 것으로 맺는말을 갈음하겠다.

첫째, 한국의 발해사 취급 현황과 일본, 중국의 현황은 분량과 단위 위계면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실 이러한 지적은 그리 새삼스러울 것도 없지만 이 글에서는 단지 1 개 문장이나 1 개 단락 정도 지면으로 소개되는 소략한 서술과 낮은 위계가 텍스트 구조와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소략한 분량의 서술은 자국사의 맥락 속에서 부가적인 제재로 활용되기 때문에 수직적 의미 관계의 하위 위계에 위치한다. 발해사 자체의 논리 파악이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오개념이나 잘못된 역사상을 심어 줄 우려가 있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는 선정된 소략한 텍스트와 그것의 배치가 텍스트의 외적 상위 구조와 뿌리깊게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이는 곧 해당 부분의 삭제나 혹은 서술 증설과 같은 대응적 조치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며 교과서를 둘러싼

내외적 맥락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각 분야와의 협력과 연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는 대목이다.

둘째, 내용 구조의 응집성은 작게는 소속 단원의 단원 구성 취지와 학습 목표에 수렴되지만 궁극적으로는 과목 목표, 그리고 이를 규정하는 국가 차원의 교육 목표와 호응을 이루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통사적 구성을 주류로 하는 역사 과목의 특성상 발해 관련 서술의 연계 유형은 수집적이면서 동시에 나열적 구조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의미있는 차이도 드러난다. 『한국사』의 경우 신라와의 비교 대조라는 수평적 의미 관계가 중첩된다. 반면 『일본사』와 『중국역사』에서는 자국사의 논리를 보완해 주는 부가적 구조로 처리되기 때문에 수직적 의미 관계를 이루면서 발해는 주변적이고 부차적인 위계로 위치지워진다.

셋째, 텍스트내의 연계 유형 역시 나열적 유형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때때로 인과적 유형을 띠는 대목도 있고 해석적 관점임에도 불구하고 확신적 유형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전반적으로 간명하고 정제된 표현을 이루지만 수사적 표현도 등장한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예외적 특성이 대체로 특정 부분에 쏠리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사』는 발해의 독자성을, 『중국역사』는 발해의 종속성을, 『일본사』는 발해의 상대적 관계성을 강조하는 맥락에 응집성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곧 각국이 발해에 대한 자국사적 해석을 중심으로 텍스트 응집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한중일의 역사교과서에 서술된 발해의 현재적 기억은 구조면에서나 내용면에서나 많은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사실 지식 위주의 역사교육을 지양하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역사교과서에서 텍스트 응집성은 더욱 중요한 기제가 될 것이다. 특별한 대안이 없는 한 현재의 자국사 중심의 발해 서술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교과서의 내외적 맥락 구조를 관통하는 공동인식의 논리가 개발될 수 있는 역사 대화의 공간이 절실한 때다.